

“쌍둥이 송아지처럼...코로나·수해 이기고 희망의 해 되길”

최악의 수해 겪은 구례 양정마을 주민들의 새해맞이

지붕 올라갔던 암소 쌍둥이 출산 “말못한 짐승도 슬픔 이겨내는데...”
100일째 임시주택 생활...삶의 터전 고치는 등 일상 복귀 위해 구슬땀

애지중지 키운 주인 덕택에 끔찍한 물난리를 겪고도 살아남은 소들은 여물도 잘 먹고 건강한 송아지도 낳았다. 주민들도 수해의 공포를 이겨내고 힘겹게 일상의 삶을 복구해나가고 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집을 닦아내고 무너진 축사 담벼락을 일으켜 세우고 텅 빈 축사에 송아지를 구해 넣는 등 지난해와 다른 새해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3일 찾아가 구례군 양정마을 주민들 얼굴에서는 코로나도 떨쳐내고 수해의 아픔도 이겨내면서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바람이 묻어났다.

◇쌍둥이 송아지처럼 건강하소, 이겨내소=구례군 양정마을 봉성농장 백남례(여·61)씨는 지난해 수해 때 세상 밖으로 나와 건강하게 커 가는 쌍둥이 송아지가 대견스럽다.

이웃집 지붕 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공포를 겪은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들인데, 당시의 공포를 떨쳐내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3일만에 이웃집 지붕 위에서 끌어내린 암소는 물 한모금도 먹지 못하면서도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 희망의 싹을 심어줬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이겨내는데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진흙투성이인 축사를 고치고 물난리에 곳곳으로 떠내려간 120여 마리의 소들을 찾아 애지중지 키웠다. 선풍기를 틀어주고 영양제를 먹이며 축사를 떠

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쌍둥이 소에게는 젖이 나오지 않는 암소를 대신해 3개월동안 분유를 먹이며 키웠다. 송아지들은 훌쩍 컸고 다른 소들도 30여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270마리가 넘었던 축사가 지난해 수해로 텅 비었지만 올해 270마리가 넘는 소들로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백씨는 “지붕위에서 내려온 어미소가 오는 10월이면 쌍둥이 소의 동생을 출산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우리 집 소들처럼 희망을 키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이젠 삶의 터전 고치며 희망가를=3일 오후 구례군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18동의 임시주택에서 만난 주민들도 새해 희망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는 문정남(55)씨는 4일이면 꼭 100일째다.

문씨는 지난해 8월 8일 갑작스레 물이 들어자 목까지 차 올랐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문씨는 수해로 어머니, 아들, 아들, 딸 다섯 식구가 오בות하게 살아왔던 120평 크기의 한옥을 최근 철거했다.

문씨는 “7평 정도 밖에 안되는 임시주택에서 모두 생활할 수 없어 구수가 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언제까지 홀로 두실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새로운 한옥 부지를 찾는 이이다.

마음 아픈 일들을 덮으려는 듯 기분 좋은 소식들도 날아들고 있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아들이 취업했다고 했다. “그렇게 어렵는데 취업했다는 아들이 대견하다”고 말



3일 오후 구례군 양정마을 봉성농장 주인 백남례(61)씨가 지난 8월 물난리 통에 태어난 쌍둥이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고있다.

하는 문씨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기가 번졌다.

문씨처럼 임시주택에 거주중인 홍정택(56)씨도 지난해와 다른 새해를 꿈꾸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지난해 잠시 손을 놓고 있을 때 수해와 맞닥뜨리면

서 삶의 밑바닥을 맞았다.

전세집도 잃고 일도 못하면서 임시주택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홍씨는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도 전부 구호물품”이라며 “개인·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

는 “지난해 큰 일을 겪어서인지 평범한 일상이 너무 나도 그립다”면서 “올해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꼭 돌아갈 것”이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초등 70%·중고생 80% “5·18민주화운동 수업 필요”

도교육청, 5·18 인식도 조사

전남 지역 초등생 70%, 중고생 80% 가량이 5·18 민주화운동 수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 초·중·고생 3100여 명과 교원 852명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수업 필요성과 관련해 초등생 70.1%와 중고생 80.1%가 각각 교과수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초등생 85.9%, 중고생 97.9%는 5·18민주화운동을 알고있다고 답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알게된 경로는 교과수업(초등생 72.1%·중고생 77.8%)이 대부분

을 차지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와 관련해 5·18 관련 영화 관람(초등생 50.8%·중고생 56.4%), 5·18 사적지 답사(초등생 18.5%·중고생 19.6%), 5·18 글쓰기·그리기 대회(초등생 15.7%·중고생 8.5%), 오월 연극 관람(초등생 8.2%·중고생 10.4%) 순으로 선호했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5·18을 비롯한 현대사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며 “특히 교과수업을 통해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 교육과정 속에 민주, 평화, 인권, 희생, 공동체 의식 등의 가치를 담은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올부터 초·중·고 학생 전면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월 2만원 인상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월 2만원이 인상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은 지난해까지 2·3학년

88만 명에서 올해부터 1~3학년 전체 124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교 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의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유아 학비 부담도 줄어든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 기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6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월 2만원 오른다.

전남대병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5개 선정

전남대병원이 올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으로 총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연구중심병원을 향한 질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 전주기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남대병원이 선정된 과제는 ▲정형외과 김명선 교수-난치성 복강 골절 및 골결손 환자를 위한 환자맞춤형 인공 견관절(어깨) 및 주관절(팔꿈치)

아울러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 유치원에도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간간하게 적용받는다. 올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인상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원격 수업을 제도화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개발 ▲정형외과 선종근 교수-생체 모방형 표면처리 기술 기반의 임상수용 맞춤형 인공 고관절 및 슬관절 시스템 개발, 질환 환경 및 치료제에 따른 최적 형상 설계가 적용된 생분해 재료기반의 다공성 마이크로 메디봇 개발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비폴리머 약물용출 스텐트인 타이거 레블루션 임상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정명호 교수팀과 시지바이오의 체흡수성 고분자스텐트 개발 등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